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내 몸 자각하기

내 몸에 새겨진 사랑

이창영 이레네오 신부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청년들과의 틴스타 온라인 교육을 위해 사전에 선생님들과 만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인천, 경기, 포항, 울산 등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선생님들, 신부님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했던 이 시간은 청년들과 함께 하는 틴스타의 교육 내용을 더 완성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과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은 기도와 찬미로 시작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내고, 신앙인으로서 빛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나눔을 통해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잔잔하게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어색함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톡톡 뭉친 우리 선생님과 신부님들은 틴스타 국제회의에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자료들을 번역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열기 직전에도 수업 진행방식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데에 열정이 넘쳤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청년들에게도 서서히 전해지며 편안하게 온라인 교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력의 특징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나를 자각하는 것’으로의 초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점액 관찰과 감정 확인에 대해, 그리고 남성들은 자신에게 하루 동안 지배적이었던 감정과 성적 욕구와의 연관성에 대해 소그룹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은 지금도 제 안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는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생식력의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도출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들 중에서(생식력 자각 관련 후기)

- 나의 몸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인 몸의 주기 관찰을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 학교나 일반 강사에게서 들을 수 없는 성인을 위한 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인 것 같고 비대면으로 교육해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 틴스타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12주라는 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통해 몸에 대해 알고 또 주기적으로 몸에 대한 체크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미성숙한 어른이었는데 틴스타를 통해 조금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던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각자의 몸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특성을 자각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성을 관찰하게 하고 또 관리하면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은 틴스타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타의 성교육들과는 다른 틴스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사랑을 자각한다는 것은 동시에 동성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에도 열린 시각을 갖게 하며, 이성과의 관계를 맺음에도 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가진 특징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특징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가졌던 소중한 시간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문화로 존재하는 시대에 대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 학기의 시간 동안 청년들과의 여정은 어둠 속에서 빛과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우리 청년들! 고맙습니다.